

부산 스포츠 마거 톡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Vol. **37**
2023. 05

반갑습니다

소통으로 하나 되는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신현기 사무처장

부산체육인

부산 세팍타크로,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다!
부산광역시세팍타크로협회 최영완 회장

영광의 인물

건강하고 아름다운 시니어 라이프를 전하다
수영구파크골프협회 전영애 회장

부산체육의 미래

기계체조 샛별들의 빛나는 비상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 체조부

구·군체육회를 가다

부산을 넘어 전국 최고를 향하여!
부산광역시남구체육회

Copyright © 2014 Busan Sport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본 메일은 발신전용으로 화신이 되지 않습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BUSAN SPORTS COUNCIL

47873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TEL 051. 500. 7900 / FAX 051. 505. 6306



반갑습니다

소통으로 하나 되는 부산체육

- 부산광역시체육회 신현기 사무처장



부산체육인

부산 세팍타크로,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다!

- 부산광역시세팍타크로협회 최영완 회장



영광의 인물

건강하고 아름다운 시니어 라이프를 전하다

- 수영구파크골프협회 전영애 회장



부산체육의 미래

기계체조 샛별들의 빛나는 비상

-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 체조부



구·군체육회를 가다

부산을 넘어 전국 최고를 향하여!

- 부산광역시남구체육회

소통으로 하나 되는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신현기 사무처장

무엇보다도 부산 체육인들이
공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들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부산체육을 함께
이끌어가도록 합시다.

부산광역시체육회에서 새로운 수장을 맞이했다. 지난 3월 신임 사무처장으로 선임된 신현기 사무처장은 1990년부터 33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는데, 그중 부산아시아경기대회준비단, 체육진흥과, 해양레저과, 걷기좋은 부산추진단 등 체육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체육진흥과에 있을 당시 부산광역시체육회에 파견근무를 나와 일을 했었어요. 이번에 사무처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는데, ‘정말 체육회와 인연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현기 사무처장은 4년의 임기를 통해 부산광역시체육회와 함께하면서 체육회의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및 윤리의식 강화를 통해 체육인 모두가 신뢰하는 기관으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사무처 직원뿐만 아니라, 현장의 경기지도자, 실업팀의 선수·감독 등 체육회 가족 모두와 소통하고자 합니다. 대화를 통해 늘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열린 체육회, 공감하는 체육회, 공정한 체육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체육·전문체육·생활체육의 상생 발전에도 역점을 두고자 한다. 스포츠클럽 등을 통해 선수 발굴과 육성 그리고 우수선수를 지원하는 등 선순환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동호인들에게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활동의 장을 넓힘으로써 스포츠 복지를 실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2025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부산체육인의 소중한 의견에 늘 귀 기울이며 소통하겠다는 신현기 사무처장. 학교체육·전문체육·생활체육 모두를 포함하여 균형 있는 부산체육 발전을 도모할 것을 약속하며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한다는 말을 전했다.

“부산체육인 여러분! 타 사·도가 벤치마킹하고 싶을 정도로 모범적인 부산체육을 만드는 데 여러분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부산체육을 함께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세팍타크로,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다!

부산광역시세팍타크로협회

최영완 회장

지난 20여 년 동안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새벽이든 야간이든 항상 선수들 옆에
있었습니다. 감독이 선수들과 항상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이죠.

화려하고 다이내믹한 공격기술이 묘미인 세팍타크로. 부산 세팍타크로는 전국에서 알아줄 정도로 우수한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심엔 늘 최영완 회장이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축구를 좋아했던 최영완 회장은 동래중·고등학교에서 축구부 선수로 활동했다. 이후 교사의 길을 걷던 중 최 회장은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세팍타크로 감독을 맡게 되었다. 최 회장은 세팍타크로가 축구와 유사한 지점이 있다 생각했고, 두 종목을 잘 접목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선수들이 어느 정도 공을 다룰 줄 알다 보니, 기술을 빨리 습득할 수 있었죠. 그렇게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팀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더니 창단 12개월 만에 전국 세팍타크로대회는 물론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거센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2013년도에는 부산체육고등학교로 팀을 이관하여 재창단하였고, 2018년 3월에는 여자팀이 창단하면서, 최영완 회장은 그야말로 부산 세팍타크로의 전천후를 책임지게 되었다. 선수들이 오로지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던 최 회장. 그러한 노력들은 눈부신 성과로 고스란히 되돌아왔다.

“부산 세팍타크로는 남녀 동반 우승 및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 5연패 등 눈부신 성과를 냈습니다. 매년 동계훈련 때마다 태국 전지훈련과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태국팀을 초청해 훈련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죠.”

지난 4월 초 부산광역시세팍타크로협회장으로 취임한 최 회장은 장·단기적인 목표를 통해 부산 세팍타크로를 위해 물심양면 지원할 것을 다짐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새벽이든 야간이든 항상 선수들 옆에 있었습니다. 감독이 선수들과 항상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이죠. 협회장으로서 앞으로 세팍타크로와 관련된 일에는 언제 어디서든 항상 옆에 있을 것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시니어 라이프를 전하다

수영구파크골프협회

전영애 회장

우리가 하루 세끼 밥 먹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생활 속에서 운동을
규칙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삶을 채워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전영애 회장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지내다 하루를 의미 있게 보냈으면 하던 중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고를 발견했다.

“상담사를 모집한다는 공고였어요. 처음으로 이력서도 쓰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관이 갑작스레 ‘시니어 모델로 활동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더라고요.”

뜻밖의 제안이었으나, 의미 있는 봉사활동이라 생각되어 모델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시니어 모델 활동을 지속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시니어 모델 단체 ‘원더풀 라이프’를 창단하게 되었다.

그렇게 화려한 인생 2막을 열어가던 중 전 회장은 특별한 제안을 받았다. 바로 구(區)의 파크골프협회 창단과 회장을 맡아달라는 것. 전 회장은 파크골프를 접해본 적이 없었기에, 우선 파크골프를 경험하러 갔다.

“명절에 구장을 갔는데 시니어, 며느리, 손자, 이렇게 3대가 함께 파크골프를 치더라고요. 야외 활동을 하며 온 가족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이죠.”

협회를 만들기 위한 조건은 1클럽에 10명, 3클럽이 필요하다. 그때 전영애 회장은 원더풀 라이프 회원들을 떠올렸다.

“제가 경험한 파크골프의 장점을 시니어 모델들에게도 말했습니다. 그때 모두가 한마음이 된 덕분에 협회를 창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영구파크골프협회의 모체가 바로 원더풀 라이프가 되는 거죠.”

수영구파크골프협회만의 장점은 여자 협회장으로서 부드럽고 단단한 전영애 회장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열정적이고 꾸준하게 운동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하루 세끼 밥 먹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생활 속에서 운동을 규칙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삶을 채워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부드러운 리더십을 발휘하며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통해 원더풀 라이프를 만들어 나갈 전영애 회장. 아름다운 이 계절, 좋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파크골프를 시작해 보고 싶어진다.





기계체조 샷별들의 빛나는 비상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을 계기로 대한민국 체육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선진국 체계로 변화시키고자 대한체육회와 부산광역시의 지원으로 2017년 발족하였다. 거점스포츠클럽은 학교 운동부와 달리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전문선수를 육성하는 시스템이다. 거점스포츠클럽의 체조(기계체조) 종목 전문선수반은 전국에서 하나뿐인 체조 스포츠클럽팀으로 현재 여자 체조선수 8명이 소속되어 있다. 창단 이후 대내외적으로 활약을 펼치고 있는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 체조부는 5명의 선수가 오는 5월 27일(토) 개최되는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부산 대표로 선발되어 대회 출전을 앞두고 훈련에 매진 중이다. 생활체육을 통해 체조에 흥미를 가진 아이들이 전문체육 선수로 성장하고 있는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 처음 체조를 접했을 때의 마음처럼 선수들이 앞으로도 신나게 체조 생활을 이어나가길 응원한다.



부산을 넘어 전국 최고를 향하여!

부산광역시남구체육회(이하 남구체육회)는 ‘스포츠를 통한 가치 있는 삶, 건강한 스포츠의 중심’이라는 슬로건 아래, 체육 운동의 범구민화와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지도교안 부문 장려상’ 수상한 남구체육회는 2022년 ‘전국 생활체육지도자 평가 종합 1위’에 선정 및 2020년 부산체육 유공자 시상식에서 유일하게 단체상을 수상하였다. 남구체육회는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으며,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밴드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생활체육 영상을 배포하기도 했다. 또한 남구체육회 지도자들은 구민 모두가 웃으며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을 만들고자 매년 관련 자격증을 추가 취득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남구체육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구민들이 건강한 삶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봉사하고자 한다.

부산광역시체육회 골드멤버

BUSAN SPORTS COUNCIL GOLD MEMBER

